

학생식당 연장 운영시간 다시 원래대로

“연장운영으로 순익분기점 못 미쳐”... 음식폐기 등 예산손실 커
학생들 “학생식당 본연의 역할 위해 연장운영 계속돼야”

연장운영 했었던 학생식당의 운영시간이 5월 1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식코너 등을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9일자 제주대신문(911호)은 우리대학 학생식당 운영 시간이 타대학에 비해 짧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종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의 운영시간을 저녁시간에 한해 30분 연장 운영해 오후 7시까지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윤희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부회의에서 학생식당 연장운영 논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

면서 “대학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게시판에서 이를 홍보하고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식당 연장 운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범기간 중 식당 이용객수를 집계한 결과,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남은 음식 폐기로 인한 식·재료비 낭비 등 예산 손실이 커 본래의 운영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황우석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확대된 운영시간 동안 최소 약 90식이 손익분기점이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음식이 많이 남아 이를 폐기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백두관 식당 내 분식코너 활성화를 들었다. 오는 2학기부터 저녁 7시까지 분식코너를 통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범운영기간처럼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현규 (지리교육전공 3)씨는 “단지 학생회관 식당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해서 운영시간을 축소한다는 것은 다소 과한 처사”라며 “학생식당이라 명명된 만큼 최소한의 학생들의 편의가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지은 (아동생활복지전공 3)씨도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최근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다시 원래 운영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매년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정문이나 후문을 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총여학생회 ‘나눔을 그리는 손’ 봉사활동



26일娘子부터 총여학생회와 KT&G 상상유니브가 주최한 ‘나눔을 그리는 손’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운동장 분부석 주변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26일 대운동장에서 ‘벽화그리기’

娘子부터 총여학생회(회장 정승원 환경공학4)는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 26일 대운동장에서 ‘나눔을 그리는 손’이라는 주제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회과학대학·경상대학·사범대학·공과대학·예술디자인대학 총 5개 단과대학의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봉사활동은 1984년 준공 이후 낙후돼 있는 대운동장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탈

바꿈하기 위해 마련된 봉사활동이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봉사의 재미와 추억을 선사했다.

벽화 도색작업은 대운동장 분부석 양 옆으로 진행됐다. 이는 대운동장 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준혁 (운리교육과 3)씨는 “이번 봉사활동은 수백명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그림 같았다”면서 “허름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봉사활동의 목적이지만 벽화그리기에 참가한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

9일 제주칼호텔서 51명 입학

제1기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9일 제주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육과정 및 원생 소개 △팀별 분임토의 및 임원선출 △허향진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오재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의 인문대학 학장은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은 각 분야의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갖고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라며 “이번 과정에서는 30주에 걸친 강의와 별도로 현장강의를 겸해 제주 인문학의 매력을 선사, 인문학과 벗 삼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해외인턴십 연수단 발대식

학생 16명 5일 캐나다 출국

제주대학생 해외인턴십 연수단이 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인턴십’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연수단은 제주대 14명을 포함해 제주관광대 2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일 출국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와 현지 기업체에서 인턴ships을 거친 후 8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현 기자

발전기금 십시일반 초등교사들의 훈훈한 후배사랑

초등국어교육전공 10학번 한뜻

매달 10만원 최장 15년간 지원

교육대학 초등국어교육전공 2013년 졸업생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지난 2월 졸업한 고상훈(노형초등학교), 김하영(노형초등학교), 박은아(제주북초등학교), 양연재(제주남초등학교), 양학용(제주하도초등학교), 임섫별(제주동남초등학교), 이수연(제주도평초등학교), 이수현(오라초등학교), 전수경(세서귀초등학교), 이하림(석불초등학교) 교사 등 초등국어교육전공 10학번 동기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사람당 만원씩 총 10만원을 초등국어교육전공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앞으로 최장 15년 동안 지원기로 했으며, 총액으로는 1800만 원에 이른다.

고상훈(노형초) 교사는 “이번 후배사랑 발전기금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한알의 밀알’이 되어 후배들이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학시절에 학교로부터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발전기금을 기탁한 초등국어교육전공 동문들. 뒷줄 왼쪽부터 고상훈 동문, 이수현 동문, 이하림 동문, 전수경 동문, 양학용 동문, 양연재 동문, 박은아 동문, 이수연 동문, 최혜영(초등국어교육전공)씨. 왼쪽 아래부터 전제용(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 김주희(초등국어교육전공)씨, 김하영 동문, 임섫별 동문.

면서 “학교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임용고시 준비로 예민하고 바쁜 4학년 때에는 교수님은 물론 후배들로부터 늘 도움받고, 배려 받았는데 그게 참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해외여행, 봉사 등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후배들이 즐겁고 알차게 대학생활을 하길 바란다”면서 “대학생활을 잘하려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선배

들의 작은 도움이 이러한 학교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가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전제용 초등국어교육전공 주임교수는 “교사로서 첫 걸음을 뗌지 얼마 되지 않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며 소중한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기특하게 생각한다”면서 “의미가 있는 소중한 기부금은 후배들의 장학금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세월호 아픔 나누자’ 학내 행사 연기 잇달아

아라대동제 5월에서 2학기로 연기

사회대·자연대도 체육행사 미뤄

대부분 단과대학은 그대로 진행

세월호 침몰 희생자의 애도와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5월 예정됐던 학내 주요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진짜 총학생회(회장 고평표 경영학과 4)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예정됐던 ‘아라대동제’를 오는 2학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29일부터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자연과학대학 ‘연광제전’과 5월 7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사회과학대학 ‘청백제전’도 2학기로 연기됐다. 교육대학은 매년 5월 5일 개최하는 제주어린이 동화구연

대회를 연기했고, 이날 어린이날 행사 일부가 취소됐다. 5월 16일 예정됐던 수의과대학 총MT도 2학기로 연기됐다. 또 매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치렀던 공무원직장협의회 주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인문대학, 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5월 중에 체육대회 행사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다만 5월 17일 간호대학이 주최하는 나이팅게일 선선식이나 5월 27일 개교기념일 행사 등 취소가 어려운 행사는 최대한 엄숙하고 경건하게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고광표 총학생회장은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애도하는 국민적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으로 내부회의를

거쳐 아라대동제 연기를 결정했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사령

유주연(언론홍보학과 3)

백승규(언론홍보학과 2)

정기자에 임명함

강서윤(언론홍보학과 1)

김하윤(언론홍보학과 1)

김해건(정치외교학과 1)

전지민(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

정민선(컴퓨터공학과 1)

정현(언론홍보학과 1)

수습기자에 임명함

이상 5월 1일자

제주대신문

‘제주4·3희생자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예순여섯 해 만에 통곡할 자유를 얻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적시에 4·3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뜨겁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왔다. 허영선 시인이 들려주는 4·3이야기는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넘쳐흐른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_서중석 | 역사학자, 성균관대 명예교수

시인 허영선의 진지한 ‘4·3’은 하나의 기록 행위 그 이상이다. 초혼의 세계이다. 또한 허영선의 ‘4·3’은 과거가 아니라 오도와 망각을 타파하는 시적 현재로 엄중하다. _고은 | 시인



제주4·3을 묻는 너에게

그것을 모르거는 역사의 한 줄도
나아가지 못한다!

허영선 지음 | 272쪽 | 값 12,900원



사설

우리 대학은 안전한가

제주와 인연을 오가는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주째이다. 이 엄청난 사고 후 온 나라는 희생자 구조 활동과 더불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야단법석을 벌이고 있다. 향후 온갖 수습 대책 등이 강구될 것이긴 하나 이 모든 것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국민이 애통하고 분노하고 있다. 실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와 의식을 청산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다. 비정상적 정상화는 이리도 힘든 것인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차디 찬 바닷물 속에서 사라져간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의 행태, 천민자본주의에서 비롯한 인명경시의 풍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도외시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재난도 상존하는 이른바 ‘위험사회’가 되었다. 새로운 대량위험이 우리 사회에 상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와 실질적 위험의 제거 등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법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아니더라도 시설물 등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갖는 등 캠퍼스 불안 현상이 우리 대학에는 없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에서 과연 학내 구성원들이 안전을 위협당하거나 그 위협이 우려된 적은 없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하마터면 사고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야간에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낯선 사람들로부터 폭력적 위협을 받은 경우 또는 각종 체육행사에서 과도한 승부경쟁으로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학본부나 총학생회는 사전 예방과 사후 재발방지 등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생활 속의 작은 안전사고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위험의 회피와 방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화된 방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돼야 한다. 이 역시 우리 대학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학본부 등 업무담당자들로서도 안전의식의 고양과 실천과 더불어 전문지식의 습득과 교육 훈련에도 더욱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수의대 전국 최초 ‘수의학교육인증’ 획득

국제공인 수의사 양성 목적… 2년간 수의학교육 인증 준비

기관효율성·학생·시설 및 자원 총 3분야 충족률 고평가

수의과대학(학장 이경갑)이 전국에서 최초로 수의학교육인증증을 획득했다.

지난 2일 경기도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전달식’에서 전국 수의과대학 중 최초로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경갑 학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의학교육인증증을 받은 것에 대해 “수의학교육실과 수의과대학의 목장이 있다는 점이 시설 영역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매년 20명씩 타 대학 학생도 듣는 계절학기 수업 대동물·산업동물임상실습 같은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서울대·건국대 수의과대학 등이 인증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거점대의 수의과대학들도 내년 또는 그 이후 인증평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수의과대학은 지난 2년 동안 수의학교육인증증을 준비했다. 2012년 10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3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류평가를 거친 후 작년 8월에는 기관의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에 대한 인증위원의 현장평가가 실시됐다.

인증평가에서는 5개 영역 중 기관 효율성, 학생, 시설 및 자원 총 3분야에서 기준 충족률이 높았다. 반면 교수 분야에서는 충족률이 다소 낮았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은 “교과과정 개편, 역량 및 성과 기반교육 도입, 임상교육 강화, 교육편람개발, 수의대 전용 건물 신축 등 인증평가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평가 종합 결과로 인증기간 4년의 완전인증을 부여했다.

수의학교육인증은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한·미 FTA과



2일 이경갑 수의과대학장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교육인증서를 받았다.

한·EU FTA 협상에 대비해 국제공인 수의사를 양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 수의사 양성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은 “한·미 FTA에서 논의될 수의사면허 상호 인정협정(MRA)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협정 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상호인정협정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

는 것이다.

한편 이 학장도 이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인해 제주대학교를 졸업해도 미국에서 학력이 인정돼 수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향후 수의학교육인증 대학에서만 수의사 시험을 치르도록 검토 중”이라며 “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과대학의 졸업생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기당장학금 300만원 전달

해양과학연구소(소장 이영돈)는 23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총 300만원의 기당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임준석(합덕고 1) 학생, 최진형(합덕고 1) 학생, 정은서(합덕중 3) 학생, 한승민(합덕중 2) 학생 등 총 4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연구소는 지난 2007년 연구소 부지와 건물을 쾌적한 기당 강구범 선생을 기리기 위해 기당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2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 32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강서윤 기자

추사유배지 체험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육행정전공 교수)는 12일 추사 김정희 유배지를 활용한 ‘유배지에서 추사를 만나다’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이 행사는 오는 5월10일부터 7월말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제주유배길 홈페이지(http://cafe.naver.com/jejuyuba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754-2484 정민선 기자

女육상 9개 메달 수확

전국대학육상선수권서

여자육상부(감독 임관철 체육진흥센터 실무원)가 경북 안동시민운동장에서 11일부터 열린 제69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서 총 9개의 메달을 따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이수정(체육학부 4)씨는 포환던지기 결선에서 제주도 신기록인 15m29를 던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10월 인천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14m98보다 31cm가 늘어난 기록이다.

임관철 감독은 “이수정 선수는 기량이 또래에 비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아 대학 졸업 후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금메달 : 포환던지기 - 이수정(체육학부 4), 1만m - 임운희(체육학부 2), 3000m장애물 결선 - 김경원(체육학부 2)

▲은메달 : 5000m - 임운희(체육학부 2), 원반던지기 - 류미진(체육학부 2), 1600m계주 - 최나람(체육학부 1)·남초름(체육학부 3)·전수영(체육학부 1)·이진아(체육학부 3)

▲동메달 : 해머던지기 - 이수정(체육학부 4), 800m - 남초름(체육학부 3), 400m허들 - 전수영(체육학부 1)

전지민 기자

‘음악과 문학’ 강연 열려

유선옥 서울대 교수 초청

소리어울림음악엔터토키센터(센터장 김정희 음악학부 교수)가 서울대서양음악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선옥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은 28일 인문대학 1호관 3층 LINK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2월에 이어 열린 이번 강의는 ‘음악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된 융복합 강연이다. 강연에는 대학생들과 일반인, 직원들이 주로 참여 하였으며 총 90여분간 진행됐다.

유선옥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았고 앞으로 좀 더 클래식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연에 참가한 이서현(경제학과 2)씨는 “평소 클래식 음악 듣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니 유익했다”고 청강소감을 밝혔다.

‘시인과 함께하는 음악학’은 이후 6월 3일과 7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해건 기자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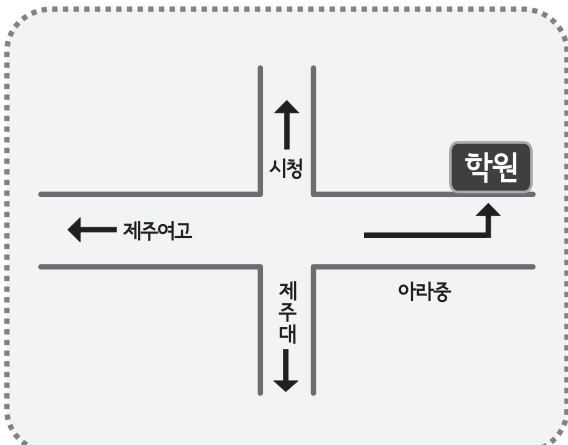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 연구소에서는 김창인 실천철학을 기초로 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김창인 실천철학을 토대로한 창의성과 실천정신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글을 기대합니다.

다 음

1. 주제 : 김창인 실천철학과 나의 인생, 나의 미래

2.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3.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4.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 50만원 (1명) - 우수상 : 30만원 (2명) - 장려상 : 20만원 (3명)

5. 공모기간 : 2014년 05월 30일까지

6. 결과발표 : 2014년 6월 20일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 앞에 게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7. 기타 : *응모자에게는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에서 실천철학 책자 및 원고작성요령을 배부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8.문의 :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문화교류관/박물관 1층)

☎ 064-754-8278, HP 010-3699-3210

김창인실천철학연구소

교수시론



신창원
영어교육과 교수

“
느림, 공공의 이익, 정직과 원칙
머리로는 당위성을 갖지만
현실속에는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는 시기다

”

제주 출신이 아닌 나에게 이제 2년 남짓 살고 있는 이곳 제주는 여전히 새롭고 낯선 곳이다. 육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처럼은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들과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알고 가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관광객과는 달리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천천히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제주살이가 주는 나름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작년 이맘 때쯤, 유홍준이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도 편에서도 적극 소개한 추사적거지를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좀 더 정확히는 건축가 송호상이 설계했다는 추사관을 보고 싶어서 가보게 되었는데 추사의 『세한도』에 나오는 집을 본 따서 설계했다는 추사관은 나름 소박한 운치를 간직한 건물이었다. 다만 디자인의 핵심인 동그란 창에 김이 서려서 안이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원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다라면 좀 더 멋스럽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말을 쓰는 제주도민이 와서 그런지 들어갈 때부터 관심을 보이시던 토박이 관리인 아저씨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한 아쉬움을 토로했더니 그 분 역시 그 점을 안타까워하셨던 기억

추사관과 대정음성

이 난다. 추사관을 뒤로하고 나오니 현재는 일부분 남아있지만 나를 견고하게 쌓아 올린 모습이 그 옛날의 위용을 느끼게 해주는 대정성지 돌담이 눈에 들어왔다. 정교하게 쌓아올려 태풍에도 끄떡없었다고 했다. 웬지 추사관이라는 현대건축물이 대정음성보다 한 수 아래라는 괜한 느낌이 들어 조금은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섰던 기억이 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한 순간 멈추게 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안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게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의식적인 노력마저도 그저 사치스럽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직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할 그 아이들에게 큰 잘못을 해버린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이 더 한 것 같았다. 주체롭게 해결책이며 원인이 뭐라고 떠들 일장도 아닌 것 같다. 다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발전을 이룬다는 미명아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감았던 비리들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시간 긴 세월을 묵묵히 서 있었던 옛 성터가 문

득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비록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남아있고 일부 복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의 대정성지는 뭔가 우직하게 원칙을 지켜온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 옛 성현의 인내와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새롭게 만든 현대 건축물인 추사관, 하지만 미적인 아름다움 혹은 추사유물전시관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떠나서 뭔가 기술적인 아쉬움이 건물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추사의 『세한도』를 완벽하게 살리지 못한 느낌이다. 건축가나 설계자를 폄하할 의도는 없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 추사관은 둘러 볼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다만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눈 앞의 이익’, ‘열렁동탕’과 같이 머리로는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 속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느림’, ‘공공의 이익’, ‘정직과 원칙’과 같이 머리로는 당위성을 갖지만 현실 속에는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는 시기이다. 또한 귀양살이의 고통을 이겨낸 추사의 인내 그리고 오랜 세월 든든하게 서 있는 대정음성의 여연함이 필요한 요즘이다.

교대생들에게 춤은 ‘플러스’다



마준석
초등교육학과 1

춤을 연습한다는 것은 술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단순한 친교 그 이상이 있다.

뭔가를 함께 준비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공감대 형성이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주는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 하나의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말이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을 미루며 함께 쌓아올린 경험은 서로를 얼마나 끈끈하게 붙잡아주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 동기들은 공동의 문제가 생겨도 깨끗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백신을 미리 맞은 셈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무대에 서 본다는 것 또한 예비 교사에게 좋은 경험이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공들여 준비한 것을 선보이는 것은 교사의 필수적인 활동이다. 신입생 시기의 경험은 특별하다. 선생이의 뇌처럼 아직 말랑말랑한 신입생에게 선생님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마쳤을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허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들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것을 마쳤을 때 찾아오는 허무는 크다. 헤어져 본 사람만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갖듯, 허무를 느껴본 이는 앞으로 허무와 함께 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주저앉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교대생은 춤을 추지 않아도 상관없다. 모든 남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몸짱인 남자들은 건강을 떠나 미관상 플러스가 된다. 교대생에게 춤은 단순히 ‘추기 위해 추는 춤’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인생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주는 활동인 것이다.

현실을 꿈에 맞추는 사람이 되자

독자기고



강준보
사회학과 4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라는 속담은 과연 옛말일까?

올해 제주대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내 친구는 삼성이 주최한 한 토크쇼에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어우러진 주변의 분위기로 인해 내 자신이 목표에 다가가는데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지 이 친구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꿈(진로)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맹모삼천지교’의 예처럼 주변 환경을 배제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작년 여름 부산에서 ‘대학생의 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지방 대학생 출신에 토익, 성적도 저조하지만 노력 끝에 꿈을 이뤄낸 그 연사는 “지방 대학생과 수도권 대학생은 각자의 고유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가의 분위기는 다르다. 더욱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타 지역보다 훨씬 자신의 성장발판을 마련하는데 어렵고 주변에서 정보의 습득이 어렵다. 그렇다 보니 경쟁상대는 주변학우가 되고 결국 ‘우리만의 리그’로 전락한다.

대부분의 학우들은 직접 보지 못하거나, 이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대수롭지 않다. 지역적 한계에 부딪

힌 대학의 인프라(학생들을 위한 사업 등)는 저조하고, 학생들 또한 각종 기업서포터즈·공모전 등의 정보 습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지 않는다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뿐이다.

모든 학생들이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과에 소속되어 강의를 듣고 학우들과 어울린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이 되었을 때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학우도 있을뿐더러, 꿈이 있지만 발자국도 떼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결국 그들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게 된다. 설사 공무원이 된다 한들, 진정으로 그 직업을 받아들이 수 있을까.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은 옛말이다. 자신이 대학생활을 보내며 이루고 싶은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학내 활동과 대외활동을 해라. 기초교육원·취업전략본부·링크사업단 등의 대학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서포터즈, 공모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대외활동을 통해 꿈을 간접 경험해 보자.

만약 도내에서 하기 힘든 활동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고 타 지역으로 직접 가면서 활동을 해보라. 타 지역을 왕래하며 대외활동을 한다면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을 감히 측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 비용이 과연 아깝다고 생각할까?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늦었다고 초조해 하지 말자. 그리고 꿈을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닌 현실을 꿈에 맞추길 바란다.

내가 직업관에 ‘교대생’이라 적을 수 있게 된 지 두 달이 됐다. 두 달 동안 교대생으로서 한 일의 대부분은 춤과 관련됐다. 신입생 환영회는 물론 섀터, 술자리, 심지어 강의실에서도 춤을 쳤다. 학회장 출범식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식은 각 과별 새내기들의 장기자랑과 12개 과 학회장들의 경쟁심리 등이 섞인 교대에서 가장 큰 행사중 하나다. 그날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턱이 코보다 높게 올라가 있는 학회장이 있다면 그가 소속된 과의 새내기들이 발군의 춤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출범식이 다가오면 새내기들의 춤 연습 또한 시작된다. 공간 시간은 물론 강의 후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곤 했다. 그 당시 나는 난생 처음 사람들과 군무를 맞춰봤다. 어린 동생들과 동작을 맞춰보고 있는 겨울 속 나를 보며 한숨과 미소가 동시에 퍼졌다.

출범식을 마치고, 텅 비어있는 연습실에 홀로 앉아 거울에 비친 나를 다시 바라본다. 내 머릿속에는 ‘왜 춤일까’, ‘어째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에서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춤을 택했을까’ 등의 의문은 출범식 전까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춤을 추고 나니 교대생에게 있어서 춤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먼저 동기간의 친교에 큰 역할을 한다. 다 같이

사람들

장예란·장현주 교수 가방디자인 전시회

현진원 교수 연구팀 항암제 내성 규명

고추월 대표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장예란(사진 위)·장현주(사진 아래)교수가 15일부터 18일 까지 제주대박물관 기획전시실 3층에서 ‘가방디자인’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문양인 ‘보문(寶紋)’을 문화원형으로 응용한 지금까지의 가방 디자인 연구과제 결과물을 선보였다.

강수빈 기자

의학전문대학원 현진원 교수 연구팀이 23일 대장암세포에서 항암제 ‘5-fluorouracil’에 대한 내성 기전을 항산 화효소 전사인자의 후성 유전학적 변형 측면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항후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는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간하는 국제저명학술지인 ‘Cell Death & Disease’에 지난 17일자로 게재됐다.

강수빈 기자

고추월 (주)월자포장 대표가 1일 ‘지역인 재양성을 위하여 써달라’며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제주대에 전달했다. 고 대표는 제주대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고 대표는 1984년 월자포장을 설립해 농민들에게 저렴한 골판지 포장상자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환원사업을 통해 개인 고기부자 야아소사업이여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하윤 기자

홍희숙 교수팀 감물 염색 문양 전시회

플루리스트 교수연 동문 카네기홀 연주

추미애 의원 책 발간 기념 북 콘서트

의류학과 홍희숙 교수팀이 감물 염색 문양 작품을 개발해 첫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오는 5월 1일까지 열리며 제주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손으로 직접 그린 제주 이미지 문양들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 동판에 새긴 후 감물염료로 직물에 인쇄함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승규 기자

우리대학 동문인 플루리스트 교수연 (03학번, 지도교수 허대식)씨가 20일 세계적인 음악 연주장소인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고씨는 지난해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Flute Competition’ 콩쿨에서 1등을 함에 따라 수상 특전으로 카네기 홀에서 연주 기회를 갖게 됐다. 그는 제주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TMTA Young Artist’ 콩쿨 1위, ‘MTNA Young Artist’ 콩쿨 2위 등을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수빈 기자

추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심’ 발간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추 의원은 북 콘서트에서 4.3특별법 제정 등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한 추 의원의 행보를 알리고 제주4·3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북 콘서트를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라며 “제주4·3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더욱 더 외쳐주십시오”라고 제주4·3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주연 기자

열정·욕심 합쳐 경쟁 이기자

동문칼럼



좌승우
경영대학원 14기
(주)글로벌이디앤씨 대표이사

학교 동문으로서 후배 재학생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적어본다. 이에 공감 혹은 반대하는 후배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수도권에서 개발관련 전문 컨설팅과 개발사행을 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았다. 현재도 제주와 경기도 수원에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여론과 의식조사 필요해 약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생각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5개월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은 첫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불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것이다. 보통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불만도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들은 친구들이 학교에 있어서, 할 일이 마땅히 없어서 학교를 다닌다는 인상을 줬다. 학비와 생활비 조달 방법은 대다수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학생 스스로 자립하거나 독립할 경우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이는 본인이 공부나 성취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둘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막연히 졸업후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 본인의 진로는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는 취업에 대한 준비다.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통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토익점수 올리기 정도에 그치는 듯 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사회봉사나 자원봉사에는 뜻이 없고, 연간 100시간의 자원봉사를 했다는 학생은 백 명당 한 명꼴로 봤다. 대기업이 원하는 조건이 토익점수가 전부인줄 아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그에 맞춰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 기업의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 서울의 한 학생이 자기 회사를 취업하고자 그 회사의 50여 군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그 경험을 살려 입사지원을 했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뽑을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 이런 것이 소위 ‘취업 준비’가 아닐까.

마지막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독립적 자세이다. 제주도의 수많은 학생들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성산 혹은 서귀포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가 멀다고 기숙사 혹은 자취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인천, 경기도 파주 등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니곤 했다. 40~50분 정도의 거리가 멀다고 통학을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게으름은 아닐까. 50분의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은 얼마나 해봤을까. 방법이 없다. 모른다. 이런 것은 전부 평계이다.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제주도의 학생들은 열정과 욕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가장 아쉬웠다. 많은 예를 들었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욕심’이다. 부모님과 친구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 학교는 보호해 줄 울타리가 있는 공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는 경쟁이고 경쟁이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 취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큰 욕심을 가져라. 그 욕심이 곧 도전과 정취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1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세계를 향한 국내 유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4학년도 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 집 인 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모 집 학 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 원 자 격	• 전공구분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
원 서 접 수	• 2014. 5. 27(화) 10:00 ~ 5. 30(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면 접 시 험	• 면접고사: 2014. 6. 13(금) 10: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지급 (유럽 : 알브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미국 : 미정,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 발 방 법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소지자를 우선 선발함)
문 의 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 아라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취재기 <3>

유치원에 울리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형식적인 봉사를 벗어나 ‘교육봉사팀’ 재정비 손수건 꾸미기·가면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단장 김성업)은 2월 15일부터 8일간 베트남 팜찌성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둘째 날부터 봉사단은 의료봉사팀과 교육봉사팀으로 나눠 팜찌성 내 주민들을 도왔다. 교육봉사팀은 팜찌성의 ‘호아마이’ 유치원에서 교육과 함께 벽화도 안 등의 봉사를 펼쳤다. 호아마이 유치원에서의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의료봉사팀이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베트남 주민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있을 때, 교육봉사팀 또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 의료팀이 몸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교육팀은 마음의 치유를 위해 ‘호아마이’ 유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자신들이 배를 굶는 고통이 있어도 자식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을 남겨주겠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 당시 ‘새벽 달 보며 집을 나서고 저녁 달 보며 들어온다’고 외치던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번 봉사단은 이전의 봉사 프로그램들이 ‘형식적’ 프로그램에 그쳤다는 의견을 반영해 ‘교육봉사’ 팀으로 새롭게 팀을 재정비했다. 김단장은 참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위임하는 과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새로운 봉사단’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봉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들이 유치원에 도착하자 유치원장과 교사들이 맑은 미소를 띠며 봉사단을 맞았다. 이내 유치원에 남아 있던 몇몇 아이들도 봉사단에게 달려와 스

스럼 없이 어울렸다. 봉사단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돌아간 다음날, 유치원장의 우렁찬 인사와 함께 교육봉사팀의 여정도 시작됐다. ‘Xin Chao!’ 아이들의 인사와 웃음소리는 금세 유치원 근처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강수정(영어영문학과 4) 교육봉사팀 대표와 7명의 학생들은 가볍게 손을 모으고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첫 수업을 시작했다. 살짝 긴장하던 그들은 한 반에 40~50명의 아이들이 웅기쭈기 모여서 자신들을 뵈러 쳐다보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짜잔! 여러분의 사진이 나와요.”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시간. 봉사단은 베트남 아이들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 즉석사진을 찍어주며 이들도 물어보고 얼굴을 익혔다.

“엠펙 라디?(이름이 뭐예요?)” 양지영(영어영문학과 4)씨의 짧은 베트남어에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곧잘 대답해 주며 재잘재잘 떠들었다. 말이 완벽하게 통하진 않아도 때로는 통역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짓을 하면서 아이들과 봉사단원은 차츰 마음을 열었다. 이처럼 한 쪽에서 사진을 찍으며 분주하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다른 반에선 한참 손수건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OHP필름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 물감을 덧대 손수건을 알록달록 꾸미는 시간. 봉사단이 준비한 아름다운 문양에 유치원 교사들은 크게 감탄했다. 그들은 이후 자신들도 이와 비슷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봉사단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은 새하얀 손수건에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문양을 새기며 수업에 열중했다. “몽키, 몽키” 손수건에 양중맞은 원숭이를 찍은 한 아이가 신나서 자신의 작품을 펼쳐 보인다.

다음은 만들기 시간. 봉사단은 바람개비, 종이접기, 가면 만들기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가면을 쓰고 칼싸움을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누구의 배가 빨리 도착하는지 내기를 하는 아이들. 봉사단도 어린이이로 돌아간 것처럼 어느새 이들과 하나 되어 즐겁게 뛰놀고 있었다.

양지영씨는 “처음에는 말이 안통하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해 줘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 아이들은 어디선가 나는 달콤한 냄새에 이리저리 고개를 가웃 거린다. 냄새의 정체는 바로 문경록(수학과 3)씨와 김현수(기계공학과 3)씨가 준비한 솜사탕. 두 남자는 산타클로스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 허허 웃으며 솜사탕을 건네준다. 커다란 기계에서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니 달콤한 솜뭉치가 이내 완성된다. 문씨가 솜사탕을 웃으며 건네자 아이들은 신나서 자신이 먼저 먹겠다고 살짝 다투기도 한다. 맘을 뽀뽀 흘리며 김씨는 거대한 솜사탕을 하나 만든다. 아이들은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솜사탕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조그마한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문경록씨는 “솜사탕을 매 시간마다 만들어 주다보니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이 나만 보면 쿵쿵 거려서 곤란했다”며 “솜사탕 하나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티 없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준 두 명



▲김현수(기계공학과 3) 봉사단원이 호아마이 유치원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 ▶강수정(영어영문학과 4) 봉사단원이 유치원 아이에게 그림교육을 해 주고 있다(사진 왼쪽). 정하윤(초등윤리교육전공 3)학생이 아이들과 지점도 공예를 지도하고 있다(오른쪽).

의 솜사탕 아저씨들은 불소도포를 위해 호아마이 유치원을 찾은 의료봉사팀(안혜림, 박진아)으로부터 양치질을 잘 안하는 아이들에게 충치예방을 하러 왔더니 이가 썩는 솜사탕을 많이 나눠주면 어떻게 하냐고 한 바탕 꾸지람을 하며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달콤한 낮잠을 자는 동안, 봉사단도 지칠 법 한데 그들은 한데 모여 이것저것 의논을 한다. 바로 유치원의 벽을 어떻게 꾸밀지 머리를 맞대고 있던 것. 단원들은 유치원의 넓은 벽을 준비해온 도안에 맞춰 새롭게 재탄생 시켰다. 워낙에 넓은 벽이라 가볍게 손만 대도 먼지가 폴짝 일곤 했는데, 이들은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기초 작업을 모두 마쳤다. 어느새 미끈하게 새 단장을 마친 벽에 봉사단은 아이들의 꿈을 자그마한 붓으로 그려 나갔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땀방울이 온 몸을 적셔도, 봉사단의 얼굴엔 달다는 짜증 섞인 얼굴대신 아이들에게 다음엔 뭘 그려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벽에는 봉사단들이 준

비한 그림 외에 제주대학교와 호아마이 유치원의 로고를 새기고, 일주일간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예쁘게 전시했다.

정하윤(초등윤리전공 3)씨는 “벽화 도안 작업은 처음”이라며 “전문가가 아니라서 벽을 괜히 망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 붓을 놀리다 보니 어느새 미술작품 하나가 완성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봉사단을 몽글하게 만든 아이도 있었다. 큰 병을 앓고 병어리가 된 띠엇(5세)이란 소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바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 교사들에게 고민을 안겨왔다. 하지만 봉사단이 준비한 풍선아트 시간에 띠엇은 조심히 다가와 친구들을 위해 공기주입기를 들고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 띠엇이 건넨 풍선을 받은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교사들과 봉사단 또한 밝게 변한 소녀의 모습을 눈시울을 붉히며 바라봤다.

유치원에서 맞는 마지막 날, 봉사단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베트남에는 희귀한 크레파스 세트와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 그리고 봉사단이 밤새 연구한 특제 팝콘 한 봉지까지. 그들은 선물을 건네면서 아이들과 한명씩 포옹을 나눴다.

김지은(간호학과 2)씨는 “일주일이란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별의 시간, 교육봉사팀은 어느새 정이 든 아이들과 떠나기 싫은 듯 삼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런 봉사단의 마음을 알았는지 교사들과 유치원장은 그들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다. 교사의 지휘아래 아이들 모두가 하나 되어 연습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노래가 호아마이 유치원에 울려 퍼졌다.

작은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봉사단은 다시금 아이들과 포옹을 나누고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 찾은 베트남에서 그들의 봉사는 호아마이 유치원에서 4일간의 추억들을 모은 사진첩을 만들었다.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베트남에 오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들이 머릿속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 동시에 아이들, 선생님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이별의 시간은 언제나 아쉽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 앞에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매 순간마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하게 기억에 남은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해맑게 웃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툰 한국어와 함께 맑은 미소를 짓던 한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다.

강수빈 기자

>> 베트남 교육봉사 체험기

“평생 잊지 못할 4일간의 따뜻한 선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핸드폰 문자가 오지만 작년 11월, 나예겐 ‘축하-아라해외봉사단원 최종선발됨’이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진동이 왔다.

그 후 손꼽아 기다린 2월 15일, 문자 한 통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힘찬 구호를 외친 뒤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마침내 봉사단을 맞아주는 베트남에 도착했다. 설렘에 부른 탓이었을까, 4시간의 긴 비행을 거친 피곤한 상태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교육봉사팀을 태운 노란 버스는 4일간 우리와 함께 할 ‘호아마이 유치원’을 향해 신나게 달렸다. 도착 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기자기한 책상 및 의자를 보니 내일 만나게 될 아이들이 상상되어 더욱 설렘다.

교육 봉사 1일째, 모두가 함께 손을 모아 기합을 외치고 아이들을 만났다. 반짝이는 눈과 함께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아이들. 처음엔 다들 신기한 표정으로 우릴 바라보지만 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사진을 몇장 찍어주자 아이들이 곧 방긋방긋 웃었다. 우리는 장기자랑, 가면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릴 적 뭘



강수정
영어영문학과 4

이들째에는 첫날의 긴장감과 달리 자신감과 함께 아이들을 만났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수수깡과 셀로판지를 이용한 색안경 만들기, 손수건 만들기 등.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과 놀이지만 베트남 아이들에게엔 무척 흥미로웠던 것 같다. 긴 수수깡을 하나씩 나눠주자 소중하게 손에 꼭 쥐는 아이들을 보며 뭉클했다.

OHP필름으로 만든 도안을 이용해 알록달록한 손수건을 만드는 시간엔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며 나중에 자신도 수업시간에 활용하겠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뿌듯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 줬다. 줄을 서서 차례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속

상해 하는 눈빛 보단 설렘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우리도 서두르자는 마음보단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준비한 수많은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먼저 아이들이 수업시간동안 만든 손수건과 찰흙 작품 등과 함께 봉사단이 직접 만든 팝콘을 나눠줬다. 봉사 마지막 날 오후에는 호아마이 유치원에서 4일간의 추억들을 모은 사진첩을 만들었다.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베트남에 오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들이 머릿속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 동시에 아이들, 선생님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이별의 시간은 언제나 아쉽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 앞에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매 순간마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하게 기억에 남은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해맑게 웃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툰 한국어와 함께 맑은 미소를 짓던 한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다.

>> 인터뷰 - ‘황 태 김쿠’ 호아마이 유치원장

“남은 일생동안 어린이들을 교육할 것”

“호 아저씨의 뜻에 따라서 베트남의 새싹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당당하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을 한 그녀가 말했다.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제 2의 호치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는 ‘황태 김쿠’ 원장(64세)를 만났다.

황씨의 유치원에는 특이하게도 건물 방 내부마다 호치민의 동상과 사진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이를 ‘호 아저씨의 뜻(호치민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불리기 원했던 애칭)’을 받들기 위함이라 말했다. 황씨의 ‘호아마이 유치원’은 베트남 팜찌성 지역에서도 비교적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규모만큼은 베트남의 도심지와 비교해도 모자란 것이 없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각 교육기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 아저씨가 베트남을 통일한 이후 강조



한 것은 바로 ‘어린이 교육’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랄 때 베트남이 언제 될 인제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트남의 문맹률은 6%로 한국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보다 빠른 시간에 유럽 복지국가식의 ‘무상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제도적 정착을 시켰다.

황씨가 처음부터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인 남편과 한명의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남편을 전쟁의 후유증(폭격으로

인한)으로 잃고, 군인이 된 아들 또한 반란 시위를 막다 사망했다. 이에 홀로 남은 그녀는 슬픔에 한동안 방황을 했다.

“몇 년을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은 꿈 속에서 저를 위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남은 일생동안 호 아저씨의 뜻을 받들어 어린이들을 교육하라는 말을 남겼죠.”

그녀는 다시금 일어났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시작한 유치원은 어느덧 베트남 시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 됐다.

황씨는 이 모든 일이 호치민과 남편이 자신의 남은 생을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차 베트남을 이룰 인재를 키우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라 말했다.

강수빈 기자

영화로 만나는 재일제주인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제주에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상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안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편견 등을 반영할 일상의 모습을 이번 영화상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상영작 안내

※ 별도의 참여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상영)

5월 20일(화) 오전11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5월 21일(수) 오후2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5월 22일(목) 오후4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GO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및 편견- 2001년 작. 드라마·로맨스·액션 상영시간: 122분 감독: 유키사다 아사오 주연: 쿠보즈카 요스케 원작: 가네시로 기즈키 <GO>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1993년 작. 코미디·드라마 상영시간: 109분 감독: 최양일 주연: 기시타니 고로, 루비 모네로 원작: 양석일 <택시 왕조곡>	디어 평양 -가족과 조국의 의미- 2006년 작. 다큐멘터리·가족 상영시간: 107분 감독: 양영희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 TEL : 064-754-3976~8 | FAX : 064-724-8855